英語의 音節에 관한 연구

—單線音韻論을 중심으로—

金 鍾 勳*

目 次

Ⅰ. 序 論
Ⅱ. 標準生成音韻論과 문제점
1. 形態素構造條件의 문제점
2. 表記規約의 문제점
Ⅲ. 音節境界理論과 문제점
1. 기본이론
2. Haugen의 견해
3. Pulgram의 견해
4. Hooper의 견해
5. 문제점
Ⅳ. 結 論

Ⅰ. 序 論

전통적으로 音節은 音聲學 또는 音韻論의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音聲學에서는 音節을 音響的으로는 울림도(sonority) 이론과 調音的으로는 흉박(chest pulse)이론에 의해 주로 기술하여 왔다. 반면에 音韻論에서는 音節을 分節音排列制約을 언급하는 기본 단위로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그러나 音節이 音韻記述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위인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견이 일치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들어 Kohler처럼 음운현상 기술에서 音節이 전연 불필요하며 해롭다는 극단적인 견해가 있는가 하면[1] Chomsky와 Halle로 대표되는 標準生成音韻論에서는 音韻記述의 기본단위를 形態素로 봄으로써 音節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Vennemann과 Hooper등의 自然音韻論에서는 音節을 두 音節境界表示 사이에 있는 分節音의 연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1) Kohler. K. J. "Is the Syllable a Phonological Universal?" *Journal of Linguistics*. 2. 1966, pp. 207~208.

* 師範大學 助敎授

게다가 최근에는 音節의 구성이 分節音의 일선상의 나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分節音의 계층적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새로운 音節觀이 주목을 끌고 있다.

音節이 음운현상 기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면에서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첫째, 한 언어의 分節音排列制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도 설명력있는 언급은 단지 발화의 音節構造를 고려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分節音韻論의 광범위한 規則들의 적용영역은 音節을 단위로 삼을 때 더욱 간결하고 일반성있게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째, 强勢 및 聲調등의 超分節 음운현상은 分節音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音節 크기의 단위로서만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다.[2]

본고는 이같은 관점의 音節에 대한 경향을 단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로서, 먼저 音節을 단순히 分節音의 일선상의 나열로 본 單線音韻論의 音節에 대한 견해와 그 난점을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도하에 본고는 音節을 音韻記述의 기본 단위로 보지않는 Chomsky와 Halle의 標準生成音韻論의 약점과 音節境界表示를 함으로써 音節이 설명된다는 音節境界式 접근방법의 여러 입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Ⅱ. 標準生成音韻論과 문제점

주지하다시피 標準生成音韻論은 音韻記述의 기본 단위를 形態素로 취급함으로써 音節을 기술단위로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입장으로 인해 標準生成音韻論은 音韻記述의 일반성과 설명력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같은 標準生成音韻論의 分節音排列制約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 언어의 分節音排列制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도 설명력 있는 언급은 단지 音節을 기본 단위로 삼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한다.

1. 形態素構造條件의 문제점

分節音의 분포나 결합에 대한 여러 제약은 이미 오래 전부터 音韻論에서 언급되어 온 논제이다. 構造主義音韻論에서는 배열제약을 音素排列論(Phonotactics)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生成音韻論에서는 추상적인 形態素構造條件(Morpheme Structure Condition)과 관련시켜 分節音排列制約을 다루고 있다.

生成音韻論이 주장하는 形態素構造條件은 체계적 음소계층의 잉여성(redundancy)에 대한 언급이다.[3] 다시말해 形態素構造條件이란 基低形의 잉여성 또는 제약에 대한 기술이다. 여기에는 分

2) Selkirk, E. O. "The Syllable"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art Ⅱ) Harry van der Hulst & Smith, N (eds). Dordrecht-Holland: Foris, 1982. p. 337.

3) Hooper, J. B.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Inc. 1976. p. 179.

節音構造條件(Segment Structure Condition)과 排列構造條件(Sequence Structure Condition)의 두 유형이 포함되어있다.

전자는 환경에 관계없이 分節音 자체의 잉여적 자질가를 언급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면 母音이 [−low]이면 [back]과 [round]의 자질이 일치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다.

(1) $\begin{bmatrix} -\text{low} \\ \text{V}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alpha\ \text{back} \\ \alpha\ \text{round} \end{bmatrix}$

후자는 分節音 연쇄로 인한 제약을 나타내는 조건이다. 이 조건의 전형적인 예는 두개의 子音으로 시작되는 形態素에서 만약 뒤에 있는 子音이 眞子音(true consonant)일경우 그 앞에 오는 子音은 /s/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2) $[+\text{cons}] \rightarrow \begin{bmatrix} -\text{voc} \\ +\text{ant} \\ +\text{cor} \\ +\text{strid} \\ +\text{ant} \\ -\text{voice} \end{bmatrix} / + \underline{\quad} \begin{bmatrix} +\text{cons} \\ -\text{voc} \end{bmatrix}$

이 規則은 眞子音 바로 앞에 오는 /s/가 形態素 맨 앞에 나오는 子音라면 [+cons]를 제외한 /s/의 다른 모든 자질이 잉여적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같은 유형의 形態素構造條件은 두가지 기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음운체계에 관한 제약을 나타내 주고 둘째는 어휘적 경제성을 도모해 준다. Brown도 이와 비슷하게 이 조건의 기능을 (1) 分節音 구조제약과 배열제약을 명시해 주며 (2) 어휘부의 입력부가 정확히 형성되어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지적하고 있다.[4]

이 기능은 바꿔 말해 分節音 자체의 경우 어떤 것이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고 또 分節音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예를들어 英語의 "폐쇄음+l"이 연속해서 나올때 어두의 /pl/, /bl/, /kl/, /gl/ 등은 허용가능하지만 */tl/, /dl/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形態素構造條件의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形態素構造條件은 形態素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해 준다. 즉 이 조건은 한 언어에 대한 가능한 形態素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Chomsky와 Halle는 英語에서 무의미단어에 대한 용인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모국어화자의 직관은 形態素構造條件에 대한 심리적 실재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고 있다.[5] 물론 이 경우에 무의미단어를 식별하는 언어능력은 체계적 음소충위의 分節音排列制約에 대한 심리적 실재를 말하는 것이지

4) Brown, G. "Syllables and Redudancy Rules in Generative Phonology" *Journal of Lingnistics*. 6. pp. 1~18.

5) Chomky N & Morris Halle.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1968. p. 380.

Shibatani처럼 표면음성제약에 대한 실재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生成音韻論에서는 形態素를 기본 단위로 分節音排列制約을 체계적 음소계층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6]

그러나 生成音韻論이 分節音排列制約을 언급함에 있어 形態素를 단위로 삼고 있다는 점은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켜 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파생되는지를 보기로 하자.

먼저 標準生成音韻論의 形態素構造條件이 形態素에 의해 언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어에 대해 배열구조에 관한 모든 일반화를 포착할 수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形態素는 정의상 통사단위(syntactic unit)이기 때문이다. 비록 形態素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 단위라 할 지라도 다른 形態素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음운구조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英語의 zero 異形態는 아무런 音韻的 표시가 없다. 즉 cut와 put의 과거시제 形態素, deer와 sheep의 복수 形態素는 현재와 과거, 단수와 복수 등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한 음운특성을 포착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꿔 말해 形態素構造條件에 의해 그같은 形態素의 음운구조를 특징화시키기란 불가능 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배열구조제약이 形態素에 의해 언급되면 音韻排列構造에 관한 강력한 설명력이나 일반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있다. 形態素를 단위로 삼아 배열제약을 기술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진술은 한편으로 음소배열제약의 설명력과 일반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통사단위인 形態素를 버리고 대신에 다른 단위를 도입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통사단위인 形態素를 기본으로 삼지 말고 순수한 音韻單位를 기본으로 도입하자는 의미이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순수한 音韻單位인 音節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音節이야 말로 가장 적은 發音 가능한 音韻單位이기 때문이다.

음소배열제약을 나타내는데 있어 形態素가 아닌 音節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한가지는 음소배열제약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표규약(Marking Convention)과 관련된 것이다.

첫째 이유로 英語의 어두에서 허용불가능한 *bn/의 연쇄를 고려해 보자. 만약 이를 形態素를 단위로 설명할 경우에는 形態素初 자음군을 이루는 *bn/은 英語에서 제외되며, 形態素 내부의 /bn/은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용인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기술해야 할 것이다.

(3) *bnik
stabnik(cf. sputnik, beatnik, Abner)
*stambnik

6) 더 엄격히 말하면 生成音韻論에서는 分節音排列制約을 체계적 음소계층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음성계층의 分節音排列制約은 形態素構造條件과 音韻規則이 적용되어 얻어진 出力으로 파악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즉, 形態素를 기술단위로 하여 이를 설명한다면 /b/와 /n/이라는 分節音의 결합이 形態素 내에서 어떤 때는 용인가능하나 어떤 때는 용인불가능하다는 일반성이 결여된 임의적인 진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를 (4)처럼 音節을 단위로 삼아 설명할 경우 /bn/은 가능한 音節初 자음군이 아니라는 제약만으로 충분히 기술할 수 있다.

(4) *σbnik
stabσnik
*stamσbnik

다시말해 音節에 의해 위 현상을 기술할 경우 /bn/은 音節初에 올 수 없다는 단 하나의 일반화에 의해 설명적, 타성성을 기할 수 있다. 따라서 分節音排列制約을 통사단위인 形態素로 기술하는 것보다 음운단위인 音節로 기술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주장은 Chomsky와 Halle가 제시하고 있는 유표규약[7]을 검토해 보아도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다음의 유표규약을 살펴보자.

(5) $[u\ cons] \rightarrow [+cons] / \left\{ \begin{matrix} + \\ +voc \\ -cons \end{matrix} \right\} ___$

이 규약이 뜻하는 바는 +CVCV연쇄에 있어 C들이 무표적(unmarked)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규약은 일반성이 상실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이 규약은 앞 C와 뒤 C에 대해 두 무표적인 위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CVCV에 있어 앞뒤의 子音은 모두 音節初임을 주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子音에 대해 하나의 무표적인 위치, 즉 音節初에서 [+cons]은 무표적이라는 훨씬 간결한 언급으로 이 규약이 의도하는 바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본절은 통사단위인 形態素 대신 음운단위인 音節을 도입해야만 음운현상을 일반적이며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왔다. 이 입장은 標準生成音韻論의 표기규약을 검토할 경우 더욱 큰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2. 表記規約의 문제점

標準生成音韻論이 音節을 기본 단위로 삼지않는 한가지 이유는 音節의 개념을 환기시키지 않고도 개별적인 음에 의해 음운작용이 만족스럽고 일반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데 있다.[8] 예를

7) Chomsky N & Morris Halle. op. cit. p.404.
8) Kenstowicz M & Charles Kisseberth.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p.256.

들어 標準生成音韻論은 개방음절(open syllable)에서 母音이 장음화된다고 기술하는 대신 하나의 자음군이 뒤따라 나오지 않 때 母音이 장음화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9] 그러나 이와는 달리 英語에는 반드시 音節을 고려해 넣어야만 일반적이며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음운현상이 있다.

일례로 r이 들어 있는 英語의 단어를 생각해 보자. 英語 단어 car, cart, catel 등에서는 [r]이 발음되지 않으나, rack, carry 등에서는 [r]이 발음되고 있다. 이 현상을 標準生成音韻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려고 한다.

(6) $r \rightarrow \phi / - \left\{ \begin{matrix} C \\ \# \end{matrix} \right\}$

그러나 우리는 이 규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왜 전혀 다른 子音과 語境界表示가 동행하고 있는가? 標準生成音韻論으로서는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더우기 C와 #는 공통된 자질이 전혀 없으므로 自然部類(Natural Class)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 규칙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가지 길은 音節이란 음운단위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즉 C와 #의 공통성은 音節境界인 바 그 표시인 $ 를 사용하여 이 규칙을 바꾸면 자연부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音節境界表示를 사용하여 이 규칙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 $r \rightarrow \phi / - (C) \$$

위 규칙은 규칙(6)이 내포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뿐만아니라 더욱 일반적이며 자연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音節을 언어학적으로 의의있는 음운단위로 인정하는 것이 그러지 않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예는 國語에서 기식파열음이 자음 앞에서 기식성을 상실하는 현상을 비롯, 자음군간단화(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현상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國語에서 '높다→놉다'가 되는 현상은 [+asp]→[−asp]/−C로 규칙화되며 '앞→압'이 되는 현상은 [+asp]→[−asp]/−# 으로 형식화 된다. 標準生成音韻論의 표기규약에 의하면 이 두 현상은 [+asp]→[−asap]/−$\left\{ \begin{matrix} C \\ \# \end{matrix} \right\}$로 표시되지만 전혀 이질적인 언어단위인 C와 #가 같이 행동하는 이유에는 함구무언이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C와 #의 공통성을 音節境界 부호인 $를 사용하여 설명하면 자연부류를 이루는 결과가 되어 國語의 음운현상은 보다 일반적이며 자연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된다.

Ⅲ. 音節境界 이론과 문제점

音節을 調音的 또는 音響的 기초위에서 정의하려는 노력은 여러 音聲學者들에 의해 시도되어

9) Anderson, S.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p.253

왔다. Stetson은 音節을 허파에서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갈빗대 사이의 근육수축 운동인 흉박(chest pulse)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며[10] Pike도 音聲的 音節을 단 한번의 흉박진동과 단 하나의 울림도 봉우리가 생기는 하나 이상의 分節音 단위로 보고 있다.[11] 또 Jespersen은 울림도의 정도에 기초하여 音節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12]

그러나 이처럼 音聲的으로 音節을 보는 입장에는 그 자체 약점을 수반하고 있다. Stetson은 근육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결과 자신의 이론을 지지해 줄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Jespersen의 音節 개념도 音節數와 境界 결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Ladefoged는 두번의 흉박진동이 하나의 音節과 관련될 때가 있는가 하면 한번의 흉박진동이 있어도 두개의 音節이 될 때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3]

따라서 音節을 音聲學的인 관점에서 정의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며 音韻論的인 방향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 관점에 의하면 音節은 分節音排列制約에 의해 音節境界를 삽입하는 규칙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는 音節을 두 音節境界表示 사이에 있는 分節音의 연속으로 보는 單線的 音節理論의 견해와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1. 기본이론

音節을 나타냄에 있어 音節境界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音節境界가 基底音韻表示의 일부인지에 대해서는 제각기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나 일단 音節化가 이루어지면 그 표시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CVCCV$ 또는 ·CVC'·CV.

즉 音節境界表示인 $나 ·또는 -에 의해 音節化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러한 音節境界 접근방법을 주장하는 학자들로서는 Bloch과 Smith(1942), Trager와 Smith(1951), Jones (1956), Hockett(1955), Haugen(1956), Pulgram(1970), Hoard(1971), Vennemann(1972), Hooper(1972, 1976, 1977) 등을 들 수 있다.

音節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과거의 音韻論에서 音韻表示를 명확히 하는 분야와 관계가 있다. 즉 音素와 境界, 또는 연접요소의 엄격한 單線的 배열로 音韻表示가 구성된다는 音韻理論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音韻規則에 기능하거나 音素排列制約을 언급하는데 관여하는 모든 정보는 分節音이나 또는 分節音 사이에 위치하는 境界나 연접표시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音節은 그들의 境界에 의해 잘 정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14]

예를 들어 Hooper는 音節을 分節音이 연쇄된 어떤 지점에 音節境界를 삽입하는 규칙에 의해

10) Sloat, C. et al. *Introduction to Phonology.* Prentice-Hall, Inc., 1979. p. 59.
11) Pike. K. L. *Phonem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47. p. 60.
12) 梁東曄. 英語音聲學. 서울 : 범한서적 1967. p.17.
13) Ladefoged, P.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82. pp. 221~222.
14) Selkirk, E. O. op. cit. p. 354.

설명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The syllable, then, can be defined in terms of a rule that inserts syllable boundaries at certain places in the sequences of segments.[15]

또한 Pulgram도 音節을 境界와 分節音排列規則에 의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syllable is a unit whose boundaries must be sought through phonological, distributional criteria, hence in accordance with the phonotactic rules of the language under analysis.[16]

이와 비슷하게 Haugen도 音節을 이해하는 데 있어 音素排列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Haugen과 Pulgram 및 Hooper의 音節境界 접근방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2. Haugen의 견해

Haugen은 構造的 또는 音素的 音節의 개념을 제시하고 音節의 이해에는 音素排列 및 音素分布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17] 音素的 音節은 音素와 같은 대조적 단위가 아니라 어떤 단위를 구성하는 音素의 연결체라는 것이다.

이 입장은 Hockett가 제시한 音節의 개념과도 관련되어 있다. Hockett는 音節을 직접구성요소(Immediate Constituent)의 계층속에 포함시켜 構造的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같은 입장이 Haugen에게도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Haugen은 音節을 音素의 分布를 기술하는 가장 편리한 틀로 생각하고 있다. 즉 音節을 계속하여 되풀이되는 音素연쇄의 최소단위(the smallest unit of recurrent phonemic sequences)로 간주하고 있다.[18]

따라서 音節의 내부구조는 音節을 구성하는 音素에 의해 기술될 수 있다. 音節은 하나의 子音과 하나의 母音, 그리고 임의적으로 子音이 붙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것이 결합된 방법의 규명을 통해 명확해 질 수 있다.

Haugn은 音節을 nucleus와 margin의 구성으로 보고 있다. margin은 nucleus를 선행하거나 후행한다. 이것은 Hockett가 사용한 다음과 같은 용어와 연결된다. 즉 nucleus는 peak이고 pre-nuclear margin은 onset이며 post margin은 coda, 그리고 inter-nuclear margin은 interlude가 되는 것이다. 각 音節은 하나 이상의 音素로 구성되는데 母音은 peak의 위치에 子音은

15) Hooper, J. B. "The Syllables in Phonological Theory" *Language* 48. 1972. p. 534.
16) Pulgram, E. *Syllable, Word, Nexus, Cursus.* The Hague: Mouton. 1970. pp. 44~45.
17) Haugen, E. "The Syllable in Linguistic Description" *For Roman Jakobson.* Halle, M et al(eds.) The Hague: Mouton. 1956. p. 216.
18) Ibid. p. 216.

margin의 위치에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Haugen의 音節觀은 겉으로 보기에는 構造的이지만 실제로는 音節境界가 삽입되어 기술되는 單線的 접근방법이다. 다시말해 Haugen은 音節 구성을 分節音의 계층적 조직으로 보는 대신에 分節音이 결합된 일선상의 나열로 설명하고 있다. Haugen이 사용한 構造的이란 의미는 계층적 조직이란 뜻이 아니며 단지 音素的 音節을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들어 英語 단어 subscribe는 그의 이론에서는 C · CCC, CC · CC, CCC · C, CCCC등의 가능한 연결체를 가지게 되는데 허용가능한 音節 구분은 /b/다음이란 점에서 音節境界表示를 이용하는 그밖의 이론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英語의 경우 onset는 strange에서처럼 3개의 子音을 허용하고, coda는 sixths에서 처럼 4개의 子音을 취할 수 있으며 /ŋ/이 onset에서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은 音素의 排列 관계가 音節 기술에 필요하다는 다른 입장과 일치하고 있다.

3. Pulgram의 견해

音節에 관한 초기의 音韻論的 접근의 기본가정은 單語構造와 音節構造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상적으로는 單語의 첫머리에 적용되는 똑같은 연결제약은 비록 音節이 單語 중간에 있을지라도 音節의 첫머리에 적용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語末에 적용되는 제약은 音節末에도 적용되어야 한다.[19] 이러한 기본가정은 Pulgram이 설정하는 音節化 원리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좀더 자세히 Pulgram의 音節構造 결정 원칙을 보기로 하자.

單語構造와 音節構造가 대등하다는 것을 인식한 Pulgram은 音節構造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보편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a principle of maximal open syllabicity
(2) a principle of minimal coda and maximal onset
(3) a principle of the irregular coda

規則(1)은 가능한한 母音으로 끝나는 개방音節로 音節을 나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單語의 모든 母音이나 二重母音 다음에 音節境界가 삽입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rooster와 master는 각각 roo$ster/ru$stər/와 ma$ster/mæ$tər/로, 첫 音節이 개방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ma$ster의 경우 문제가 생겨난다. 왜냐하면 ma$ster는 英語의 語末에 이완모음(lax vowel)인 /I, ɛ, u, U, æ/등이 올 수 없다는 分節音排列制約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ma$ster는 語末에서는 나타나서는 안될 母音 /æ/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잘 조정하기 위해 規則(2)가 제시되고 있다. 規則(2)는 規則(1)이 적용된 후 分節音排列上의 제약을 어기지 않도록 終聲과 初聲을 조정하는 원칙이다.[20] 이에 따라 master는 規則(1)

19) Hyman, L. M. *Phon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5. p. 189.
20) Pulgram, E. op. cit. p. 50.

에 의해 ma$ster가 되었다가 規則(2)에 의해 s가 첫 音節로 보내져 mas$ter가 된다. 이밖에 employ란 單語도 規則(1)에 의해 e$mploy로 분석되지만 mpl연쇄가 語頭에 올 수 없다는 英語의 제약때문에 m이 첫 音節로 보내져서 em$ploy가 된다는 것이다.

規則(3)은 音節初부터 音韻末 위치에로의 필요한 전환으로 허용가능치 않는 音節末 자음군이 될 경우, 그때의 불규칙성의 부담은 初聲보다 終聲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規則(1)과 (2)에 의해 音節化한 다음 만일 허용할 수 없는 자음군이 頭音에 오게 될 경우, 이것을 規則(3)에 적용하여 허용할 수 없는 자음군을 末音群에 오도록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規則은 音節初보다 音節末에서 긴 자음군 연쇄가 허용된다는 말과 흡사하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transcribir란 單語를 보자. 이 單語는 첫번째 規則에 의해 tra$nscribir로 音節化 된다. nscr는 스페인어의 語頭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n이 첫 音節의 뒤로 보내져 tran$scribir로 音節化된다. 그러나 scr도 여전히 가능한 스페인어의 語頭子音群이 아니므로 s가 첫 音節에 보내져 trans$cribir로 재음절화 된다. 그럼에도 결과는 스페인어 語末에 나타나지 않는 子音群 ns를 허용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tran$scribir이나 trans$cribir 둘다 스페인어 單語構造制約을 어길 경우 規則(3)은 初聲이 單語構造制約을 어기는 tran$scribir보다 終聲이 單語構造制約을 어기는 trans$cribir을 취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Pulgram이 제시하는 위 세가지 보편적 音節構造 원리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우선 語頭나 語末에 대한 分節音制約條件은 각각 音節初 및 音節末 分節音排列制約과 동일하며 音節化는 단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音節化가 이루어지는 가장 최소의 단위는 單語처럼 행동하며 그 단위가 항(section)이라는 Pulgram의 말에서도 나타나 있다.[21] 위 세가지 音節化 원칙은 사실상 語頭는 音節初와 語末을 音節末과 같다는 기본 가정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音節化에 있어 强勢의 영향은 없으며 두 [+syllabic]사이의 子音이 兩音節的(ambisyllabic)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강세가 音節化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Hoard와 Kahn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기술되고 있다.

4. Hooper의 견해

한편 Hooper는 分節音들의 연속에 音節境界表示인 $를 삽입하는 規則에 의해 音節을 파악하고 있다.[22] Hooper가 제시하고 있는 音節境界 삽입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syllabic] 사이에 $를 삽입하는 規則이다.

規則(1) $\rightarrow \$ / [+\text{syllabic}] \text{——} [-\text{syllabic}]$

21) Ibid. p. 46.

22) Hooper, J. B. "The Syllables in Phonological Theory" *Language* 48. 1972. p. 537.

이 規則에 따라 here와 real은 각각 here/hiʃə/, real/riʃəl/로 표시되며 employ는 emʃpolʃy로 된다. 이때 here를 두 音節로 employ을 세 音節로 처리해도 좋으나 하는데는 난점이 있다.

둘째는 分節音의 연속을 개음절화 하도록 ʃ을 삽입하는 規則이다.

規則(2) $\phi \rightarrow ʃ / [+\text{syllabic}] \text{——} [-\text{syllabic}]\,[+\text{syllabic}]$

즉 …VCV…의 연속을 …VCʃV…로 音節化하지 않고 …VʃCV…로 音節化시키는 規則이다.

셋째는 둘 이상의 [−syllabic] 分節音들이 연속되어 있을 경우 아래처럼 적용되는 規則이다.

規則(3) $\phi \rightarrow ʃ / [+\text{syllabic}]\,[-\text{syllabic}]_{\circ} \text{——} [-\text{son}]\,[^{+\text{son}}_{-\text{nasal}}]_{\circ}\,[+\text{syll}]$

우선 두개의 [−son]分節音이 연속될 때 그 사이에 ʃ가 삽입된다. 예를 들면 absolute는 abʃsolute로, master는 masʃter로 音節化된다는 것이다. 다음에 비음이 뒤따라 오지 않는 하나의 [−son]分節音이 있으면 그 [−son]은 앞에 ʃ를 삽입한다. 예를 들면 content는 conʃtent로 音節化 된다.

그러나 規則(3)에는 예외가 많이 발견된다. 그리하여 Hooper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에 대한 規則을 설정하고 있다.

規則(4) a. $\phi \rightarrow ʃ [^{-\text{son}}_{+\text{cor}}] \text{——} [+\text{lateral}]$

b. $\phi \rightarrow ʃ / \text{——} \begin{pmatrix} -\text{son} \\ +\text{cor} \\ +\text{strid} \end{pmatrix} \begin{pmatrix} [+\text{cons}] \\ [^{+\text{voc}}_{-\text{lateral}}] \\ [^{-\text{voc}}_{-\text{voice}}] \end{p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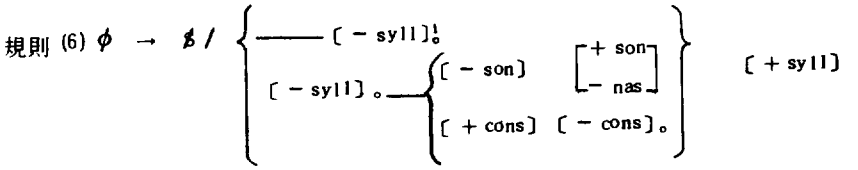
規則(4a)는 비공명음과 측음이 잇따라 올 경우 그 사이에 ʃ가 삽입되는 規則이다. 그리하여 音節內에 허용되지 않는 英語의 /tl/이나 /dl/은 각각 tʃl과 dʃl로 音節化하게 된다. 規則(4b)는 /s/다음에 子音이 올경우 그 중간에 ʃ를 삽입하지 않고 /s/앞에 ʃ를 삽입하여 英語에서처럼 ʃst, ʃsp, ʃsk, ʃsl등으로 音節化되는 것이다.

Hooper가 언급하는 또 하나의 規則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規則(5) $\phi \rightarrow ʃ [+\text{syll}]\,[-\text{syll}]_{\circ} \text{——} [+\text{cons}]\,[-\text{cons}]_{\circ}\,[+\text{sy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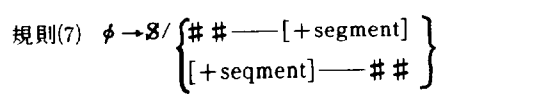
規則(5)는 비음, 유음, 이동음으로 연속된 子音群을 音節化할 때 적용되는 規則이다. 즉 두개의 비음, 두개의 유음, 유음과 비음, 비음과 유음등으로 연속될 때 이 두 分節音 사이에 ʃ를 삽입하고, 만약 하나의 子音이 있을 때는 그 子音 앞에 ʃ를 삽입하는 規則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規則(1)(2)(3)과 (5)는 표기규약에 의해 다음과 같이 축약이 가능하다.



規則(6)은 音節境界를 표시하는 범어적 規則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처럼 Hooper는 分節音의 연속에 音節境界表示인 $ 를 삽입하는 規則으로 音節을 설명하고 있다. Hooper의 그러한 規則에는 앞서 본 Pulgram의 원리와 공통되는 점도 발견된다. 즉 音節化의 적용영역이 單語라는 것을 Hooper가 보여 주는 것은 Pulgram과 같은 입장이다. 예를 들어 Hooper는 語頭와 語末에 $ 를 삽입하는 다음의 規則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Pulgram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과 동일하며 결국 語頭나 語末에 대한 分節音排列制約은 각각 音節初·音節末 分節音制約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强勢를 音節化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母音間 子音의 兩音節性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Pulgram과 비슷한 견해라 할 수 있다.

5. 문제점

앞에서 우리는 分節音排列制約과 더불어 音節境界를 삽입시켜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單線的 音節記述의 입장을 검토해 보았다. Haugen, Pulgram, Hooper의 비계층적 音節記述의 방법은 전술한바와 같이 音節構造를 결정하는 보편적 원칙을 제공하려 한데 그 의의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먼저 單語에 따라 정확한 音節境界를 어디로 해야할 지 결정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bedroom을 어떻게 音節化시켜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英語에서는 /ɛ/가 허용가능한 語末母音이 아니므로 bed$room으로 音節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英語의 많은 화자들은 bedroom을 두가지 형태, 즉 사람이 자는 방(the room in which one sleeps)과 침대를 위한 공간(space for a bed)으로 구별하고 있다. 여기서 후자는 Pulgram의 원칙을 따라 [bɛd$ruwm]으로 音節化되지만 전자의 경우는 때때로 [bɛ$druwm] 또는 [bɛ$druwm]으로 音節化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두 單語를 내부경계표시를 사용하여 각각 bed+room과 bed#room으로 구별할 수도 있으나 이 때에는 dr이란 연쇄가 英語에서 音節初에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音節이 나누어지게 된다. 또 音韻的 音節과 音聲的 音節을 구별하여 각각 /bɛd$rum/과 [bɛ$drum]으로 볼 수 있으나 音節에 대한 그같은 두 입장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여전히 문

제점으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Jones는 音聲的으로 합의가 된 音節은 없으며, 또한 單語의 音節數는 母音數로 파악할 수 있지만 音節의 정확한 수나 音節間의 분절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23] Bell도 音節의 특성은 音聲學的으로 音韻論的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音節境界式 접근방법으로서는 音韻記述에서 일반화를 기할 수 없으며 타당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없다. 音節境界의 이같은 문제점을 막는 한가지 유일한 길은 音韻記述에 있어 그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일인데 이 점이 標準生成音韻論者들로 하여금 音節이 音韻論에서 불필요하다는 가정을 세우게 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24] 그러나 우리에겐 音節이 여러증거를 통해 音韻記述의 기본단위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25] 일단 音節을 인정하는 대신 音節境界的 접근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音節을 설명하는 길이 없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겠다.

Ⅳ. 結　　論

이상에서 본고는 音節을 단순히 分節音의 單線的 나열로 본 單線音韻論의 音節에 대한 입장과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標準生成音韻論의 形態素構造條件과 그 약점 및 音節境界的 접근방법의 견해와 문제점을 차례로 검토해 온 것이다.

標準生成音韻論에서는 音韻記述의 기본단위를 形態素로 취급함으로써 音節을 사실상 기술단위로 삼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標準生成音韻論은 形態素를 기술단위로 하여 分節音排列制約을 形態素構造條件과 연관시켜 다루고 있다.

그러나 標準生成音韻論의 形態素構造條件은 성격상 통사단위인 形態素에 관한 언급이므로 대부분의 언어에 대한 배열구조 및 제약을 일반화 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단수와 복수가 동일한 形態素와 현재와 과거 및 과거분사가 동일한 形態素는 이 조건으로서는 설명하기 곤란한 현상이다.

이에 반해 순수한 음운단위인 音節을 음운기술의 기본으로 삼으면 앞서 논한 배열제약을 일반적이며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Chomsky와 Halle가 주장하는 유표규약도 音節을 기본 단위로 볼 때 더 큰 타당성을 갖게 되며 표기규약의 문제점도 해결 가능하게 된다.

音節을 음운기술에 도입하는 초기의 학자들은 分節音이 결합된 單線的 나열속에 音節境界表示를 삽입시켜 音節化를 나타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Haugen과 Pulgram 및 Hooper 등은 音節境界表示를 이용하여 單線的으로 音節을 설명하는 학자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音節境界的 접근방법은 單語에 따라 정확히 어디에 音節境界를 두어야 할지 곤란한 경우가 있어 역시 문제가 된다. CVCCV 구조를 가진 單語를 CV$ CCV로 音節化할 것인지

23) Jones, D.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W. Heffer & Sons. Ltd. 1957. p.55~60.

24) Hyman, L. M. op. cit. p.192.

25) 拙稿 "英語의 音節構造와 機能"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29집 1984. pp.96~97.

아니면 CVC&CV로 表示할 것인지 音節境界 접근방법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音節境界의 이러한 문제점은 音節을 음운기술에서 허용치 않으면 해결 가능한데 音節의 心理的 실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증거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므로 일단 音節을 인정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音節을 分節音의 계층적 조직으로 보는 최근의 音韻論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

Summary

The Syllable in English Phonology

Kim Jong-hoon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linear approach to representing the syllable. The conception and problem of the syllable boundary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syllable will be studied.

The first chapter argues that phonotactic constraints should be stated in terms of the syllable rather than the morpheme. That is, constraints on sequences of segments that are expressed by the Morpheme Structure Condition can't make the strongest possible nor the most explanatory generalization about phonotactic structure.

The second chapter treats some of the drawbacks of the non-hierarchical view that the syllable is merely the sequence of segments in a representation that is delimited by syllable boundaries. The general principle and its problems of the syllable boundary advocates will also be elaborated.

These considerations lead us to justify the rejection of the boundary approach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syllable in favor of another approach–the hierarchical one.